

고려해운

지난해 당기순익 210억원

고려해운(대표 최영후)이 작년 매출 4916억원, 경상이익 270억원, 당기순이익 210억원을 기록하며 20년 연속 흑자를 시현했다.

고려해운은 지난 2월28일 오전 서울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 및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를 결산하는 제2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2004년도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안의 승인 등을 처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고려해운은 전년대비 약 13% 증가한 491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140억원, 경상이익은 270억원, 당기순이익은 210억원을 기록해 지난 1985년 이후 20년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한편, 고려해운은 이완섭 이사를 상무이사로, 신용화 부장을 이사로, 권오인, 백관선 부장을 이사대우로 각각 승진발령했다.

남성해운

'스타마리너'호 진수식

남성해운(대표 김영치)은 2월25일 대선조선소에서 962TEU급 컨테이너선 '스타마리너'호(Starmariner호)에 대한 진수식을 가졌다.

이 선박은 전장 142.7m에 선평 22.6m, 흘수 11.2m이고 18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다.

남성해운은 이 선박을 인도하는 오는 5월초에 한-중-일 항로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 선박은 부산항을 기점으로 중국 링보와 상해, 일본의 Shimizu, Sendai, Ohnahama, Hitachinaka간을 주 1항차로 운항할 계획이다.

대한해운

임직원 승진인사 단행

대한해운(대표 이진방)이 3월1일부로 임직원 20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한다.

△전무 : 박재민 영업본부장 △상무 : 김태풍 해사본부 부분부장 △상무보 : 김철봉 재무팀장 △이사대우 : 정영세 공무팀장 △부장 : 서일경 공무팀, 고재덕 공무팀, 홍대식 전용선팀, 박임구 해무팀, 김태형 LNG기술팀, 이만호 전용선팀 △부장대우 : 공진식 해무팀 △차장 : 우준욱 부정기선1팀, 배연성 전용선팀 △과장 : 김정열 총무팀, 염철승 부정기선1팀, 안성민 기획팀, 임상범 전용선팀, 김상규 부정기선2팀 △대리 : 신경희 기획팀, 현연수 재무팀

범주해운

공컨테이너 1,600개 제작

범주해운(대표 이상복)은 공컨테이너 1,600개를 제작하여 컨테이너 박스를 새로 제작, 투입한다. 범주해운은 지난 2월 (주)진도와 신규 컨테이너 발주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는 5월중 20피트 컨테이너 800개, 40피트 컨테이너 500개, 40피트 하이큐빅 컨테이너 300개의 총 1600개, 2400TEU의 신규 컨테이너를 인도받는다.

범주해운 관계자는 "신규 컨테이너는 진도의 대련, 상해 등 북중국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금년 2분기 전에 우리의 중국-한국-일본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컨테이너는 과중량(30t) 화물 선적이 가능한 강화 컨테이너이며 우레탄으로 코팅돼 손상 및 오염을 최소화한다. 컨테이너 외부

에는 범주해운의 고유 로고(PANCON)와 깃발 마크가 어우러져 새겨진다.

범주해운이 운영하고 있는 컨테이너는 대부분 2000년 이후 제작된 비교적 새 컨테이너로 이번 발주물량이 투입되면 범주해운 컨테이너의 평균 연령은 더욱 젊어질 전망이다.

KSS해운

지난해 당기순익 132억원

KSS해운(회장 장두찬)의 작년매출은 738억원, 경상이익 195억원, 당기순이익은 132억원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자료에 따르면 (주)KSS해운의 작년 매출액은 2003년 723억원보다 2.2% 증가한 738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운임매출은 540억원으로 2003년 524억원보다 3.1% 증가했으며 대선료매출은 195억원(전년비 0.5% 증가), 대리점수수료는 2억 5,410만원(73.6% 증가)의 실적을 보였다.

작년 영업이익은 142억원으로 2003년 139억원보다 2.1% 증가했다. 경상이익은 195억원으로 2003년실적 217억원보다 10.2%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003년 152억보다 13.4% 감소한 132억원을 기록했다.

씨브라운팅그룹

해양문화 밤 후원

씨브라운팅그룹(회장 임병석)이 후원하는 '해양문화 진흥의 밤' 행사가 2월23일 한리버랜드 여의도 선착장 올림픽1호 선상에서 개최됐다.

강과 바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되새기고



한국해양문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1부 공식행사에서 해양문학인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후원회장인 임병석 회장의 격려사와 이번에 새로이 명예회장으로 위촉된 조정제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답사가 있었다.

이어 리모델링을 거쳐 종합이벤트 공간으로 새롭게 오픈한 한리버랜드 독점선착장을 참관한 후 열린 2부행사에서는 해양문학인들의 해양시낭송, 해양가요연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피날레를 장식할 축하공연으로는 서편제로 유명한 국악인 오정해씨의 해양민요 공연이 이어졌다.

임병석 씨브라운팅 회장은 격려사에서 "해양문학이야 말로, 바다 생명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보존 의식을 높이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문화선진국에 비하면 비록 현재의 한국해양문학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개척자의 소임을 다 하신다면 해양문화강국의 그 날도 머지않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의 후원을 맡은 씨브라운팅그룹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소외이웃들을 계열사인 한리버랜드에 초청, 한강유람선탑승 및 식사와 여흥을 제공하는 '사랑의 유람선' 행사를 진행중에 있다.

SK해운

지난해 순이익 3,532억원

SK해운(대표 이정화)은 지난해 전년대비 24.8% 증가한 1조6,72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또 영업이익은 1,154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으며, 경상이익은 지난 2003년 1,567억원의 적자에서 지난해에는 4,462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이익 역시 지난 2003년에는 적자규모가 1,722억원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3,53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작년말 자산총계는 1조8,755억원으로 전년대비 18.9% 증가했으며, 부채총액은 1조4,783억원으로 11.2% 줄어드는 등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SK해운측은 이같은 매출액 증가와 흑자전환 배경에 대해 유조선 신규선박 도입과 해운시황 강세, 외화환산이익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TX Pan Ocean

임직원 워크숍 개최

STX Pan Ocean(대표 이종철)은 전 임직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월18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오코밸리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GOOD TO GREAT, STX PAN OCEAN!”이란 주제아래 비전 2010 달성을 위한 회사 발전 전략, 리더십, 열린 커뮤니케이션, 고객 만족,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직위별로 10개 분임 소주제를 정하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열린 토론



의 장이 되었다.

첫째 날은 각 소 주제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둘째 날은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하였으며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제안과 건의사항 등은 조속한 검토를 거쳐 회사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첫째 날 저녁에는 임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임직원 한마음 마당을 개최하여 전 임직원이 함께 어우러지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강덕수 회장은 마무리 인사를 통해 임직원들이 허심탄회하고 열린 토론을 해준데 대해서 치하하고 임직원들의 자율과 의무, 권한과 책임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회사는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구성원들은 고객만족을 통해 좋은 회사를 넘어 위대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유코카캐리어스

평택에 자동차부두 건설

유코카캐리어스(대표 칼-요한 빌헬름해그만)는 LG건설과 함께 평택·당진항 동부두에 5만톤급 자동차 전용부두 1선석을 2008년까지 건설한다.

유코카캐리어스와 LG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3월3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한 평택·당

진행 자동차부두에 대한 민자참여 심사결과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유코카캐리어스와 LG건설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자동차전용부두는 평택·당진항 동부두 11번선석이며 5만톤급 1선석으로 안벽길이 290m에 전면수심 14m로 총 3만 7,200평의 부지가 조성된다. 동 컨소시엄은 유코카캐리어스가 90% 지분, LG건설이 10%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투자비가 보전된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6월초까지 선정된 사업자로부터 항만공사시행허가신청서를 받아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거친 후 허가할 계획이며 늦어도 올해 말에 착공, 2008년경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당진항은 지난해 자동차 수출은 77만대로 전년도에 비해 20여만대가 늘어났으며 올해도 약 90만대의 자동차를 처리할 전망이어서 자동차부두 추가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그동안 시멘트를 처리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없어 하주 등 항만이용자가 타 항만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등 불편이 가중돼 왔다.

태영상선

한중항로 컨테이너선 투입

태영상선(대표 박영안)은 3월2일 한일간 항로에 투입중인 420TEU급 풀컨테이션 'PRETTY OCEAN'호를 한중 항로에 투입했다.

동 선박은 부산(수요일)-광양(목요일)-신강(토요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기존 항로는 여타 국제 선사들과 Slot Swapping을 통해 청도/대련/상해 4개항 각 주 2항차 서비스를 유지한다.

한편, 한일항로에는 기존선박보다 운항효율이

높고, 규모가 큰 대체선 'XIN HE SHI BA'호를 우선하여, 기존 INCHON-PUSAN-일본 KHIHIN 항로 서비스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영상선은 오는 4월1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한강에서 기념행사를 갖는 등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진해운

미주노선 정상화 선대조정

한진해운(대표 박정원)은 그 동안 미서안 롱비치터미널의 적체 현상으로 일부 조정했던 미주 서비스 노선을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그에 따른 노선별 선대를 조정하고 있다.

시애틀, 밴쿠버, 포틀랜드로 기항지가 변경되었던 PDE(Pendulum Express Service)노선은 다시 기존 미서안의 롱비치와 오클랜드에 기항하게 된다.

한편, 조정 기간 동안 5,500TEU급 선박이 기항하면서 늘어난 미주 서북부 지역 공급량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 PDS(Pacific Southwest (pendulum) Express Service)노선에 투입되었던 5,500TEU급 2척과 4,500TEU급 3척이 PN(Pacific Northwest Express Service)노선에 투입된다.

대신 PSX 노선에서 운항 중이던 4,000TEU급 5척은 PDS 노선으로 옮겨가게 되어, PDS 노선에는 4,500TEU급 7척을 포함 총 12척의 선박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 중 남중국국의 치완(赤灣)이 새로운 기항지로 포함되었다.

CEX(CHINA EUROPE EXPRESS SERVICE)노선은 유럽 서비스 합리화 계획에 따라, 그 동안 기항하던 남중국국의 샤먼(廈門)과 치완이 제외되

고 광양과 홍콩이 새로운 기항지로 추가되었다. 한편, CEX노선에서 제외된 샤먼은 2월 말부터 CNEU II (COSCO 제휴) 노선으로 서비스 되고 있다. 한진해운은 작년 10월말부터 시행해 온 임시 노선 변경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 가능한 미서안 선박 적체 현상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번 미주 서비스 노선 정상화 및 선대 조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정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진해운은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지난 2월18일 호치민시의 현지법인 사무실에서 설립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 1월에 설립된 현지법인은 영업력 증대와 법인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현지 업체(SGN Logistics & Trading Co.,Ltd)와 합작 법인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한진해운은 지분 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한다.

한진해운은 1993년 처음 대리점 영업 형태로 베트남에 진출하여, 현재 호치민(노선명 : HPX, 장금상선과 공동운항)과 하이퐁(노선명 : HPA, 흥아해운의 선박 임차)에 직기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년에 약 4만TEU의 컨테이너 수출 물량을 처리하여 약 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올해는 약 5만TEU 수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립 기념 행사에는 한진해운 김영민 부사장, 최병섭 서남아 지역 본부장, 김지영 호치민 총영사와 경제영사, 포스비나 법인장, 대한항공 지점장 등 사내외 인사 1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인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현지 법인 설립을 계기로 한진해운은 향후 영업망을 더욱 확대하고 자가 터미널 확보 검토 등 해운 물류 시설 확충을 통해, 베트남 해운 시장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흥아해운

부산-境港 서비스 개시

흥아해운(회장 이윤재)이 2월27일부터 부산-사카이미나토(境港)항 서비스를 개시했다.

흥아해운의 새로운 서비스는 현재 부산-마이주루(舞鶴)-쓰루가(敦賀)항로에서 새로운 기항지로 사카이미나토를 들리는 것으로 투입선박은 현재 이 항로에 서비스하고 있는 237TEU급의 'Asian Cygnus'호이다.

이 선박은 2월27일 부산항을 첫 출발하여 쓰루가(화요일)-마이주루(화)-사카이미나토(수)-부산(목)항을 기항하는 정요일 서비스에 들어갔다.

사카이미나토항은 일본 서해안 돗토리현의 끝단으로 쓰루가로부터 서쪽으로 160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다.

사카이미나토항에는 지금까지 중국항로에 컨테이너선이 주 1항차 취항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 사업추진단 구성

부산항만공사(사장 추준석)는 내년 1단계 개장하는 부산신항 관련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월 2일 신항만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기획분야, 사업개발분야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신항개발사업의 추진을 한데 모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사업추진단은 부산항의 부족한 배후물류부지를 개발하여 대규모 국제 물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의 물류중심

항만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신항 배후물류단지 개발사업, 2011년까지 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두개발사업, 내년부터 개장 운영하는 신항의 차질없는 개장 준비 등 신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조직 구성은 추연길 팀장을 필두로 하여 5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분야별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향후 늘어나는 업무량에 따라 조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3월7일 부산발전연구원 김영삼 원장의 내방을 받고 부산항의 발전을 위한 양 기관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부산항만공사와 부산발전연구원은 항만물류산업이 부산지역의 핵심전략산업이라는 공동인식 하에 향후 부산항의 발전을 위하여 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추준석 사장은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지역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만큼 부산항에 특별히 애정을 갖고 앞으로 부산신항 개발 및 북항 재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제언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2005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2월17일 프레지던트호텔 신세계홀에서 제 3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협회 명칭을 '한국국제해운협회(The International Shipping Association of Korea : ISAK)'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또 협회 회원자격을 현재 외국적 외항선박 총대리점(정회원)과 외국적 선박회사의 국내지사(준회원)라는 구분을 없애고 정회원과 준회원을 동등한 자격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들이 "협회명칭은 업종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하나 국제해운이라는 명칭은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포괄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홍용찬 회장은 동 의견을 받아들여 금년도 이사회에서 재논의해 내년 총회때 재상정하기로 하고 우선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4년도 사업실적 및 예결산을 비롯해 2005년도의 예산안과 사업계획이 승인됐으며, 동진선박 정성환 전무와 한국해운 정형운 대표이사 상무, 엔와이케이라인코리아 이원섭 이사에 대한 임원 보선건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이상문 서기관에게 감사패를, 엔와이케이라인코리아 금승호 부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국선급 부산본부 설립

한국선급은 2월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2005년 정기총회를 갖고 선급의 부산본부 설립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선급은 기존 부산지부와 감천지부를 하나로 통합해 부산본부를 부산시 강서구에 설립하기로

했다.

부산본부 건물은 부산시의 금융 지원을 받아 부산 강서구 명지동 5천700평 부지에 지어질 예정으로 당초 건립이 추진됐던 선급 연수센터도 함께 들어간다. 부지매입 가격은 118억5,000만원. 매입금은 5년분할상환에 환매특약 5년의 조건으로 융자된다.

이로써 대전에 소재한 선급의 부산 이전 논란은 대전과 부산이라는 본부이원체제로 매듭지어지게 됐다.

선급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산본부가 설립된다고 해서 선급이 이원화체제로 운영된다고 판단하기엔 부산본부의 역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성급하다"며 이후 부산시와 해양부와의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선 선급의 2004년 주요실적과 결산보고가 있었다.

선급의 작년 PSC(항만국통제) 지적방지 실적을 보면 도쿄MOU와 파리MOU는 작년 12월말 현재 각각 1.61%(30척)와 0.58%(1척)로 2003년의 3%와 0.67%보다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USCG에서는 3년 연속 선급귀책사유로 지적된 선박이 없었다.

한국항만협회

2005년도 정기총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항만협회는 2월25일 홀리데이인 서울호텔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황호영 전 해운항만청 개발국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황호영 신임회장은 현재 항만건설 설계업체인 세일종합기술공사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수석부회장에는 조남일 전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이 선임되었으며, 부회장에는 박문수, 김

형인, 이동원, 김혁기, 김용균씨가 각각 선임되어 총회의 인준을 받았다.

2004년말 현재 한국항만협회 총 회원수는 단체 회원 58명, 개인회원 674명 등 모두 732명이다. 이날 승인된 2005년도 항만협회 수입, 지출 예산은 총 6억 5440만원이다.

한국해기사협회

2005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해기사협회(회장 박찬조)는 3월10일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해기사회관 대강당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가 만료된 박찬조 회장을 제26대 회장으로 재추대했다.

앞으로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되는 박찬조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회원권의 보호와 조직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실효성있는 회원복지 및 협회활동 참여의식 고취 △해사 정보, 기술연구 및 보급 등을 중점으로 하는 협회 운영 구상을 밝히고 급변하는 국내의 해운환경과 질서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협회 운영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육해상에 근무하는 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협회 임원들과 이인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해운관련 기관·단체·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해기사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해 중점사업 추진방향을 회원권익의 보호 및 해사연구 정책개발, 복지 및 홍보활동 활성화, 경영합리화사업 등에 두고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기사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해운 각계에 재직하는 동안 해기직의 매력화 사업 및 해기사의 권익신장으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김진동 인천해양안전심판원장, 류의수 한국선박관리협회 전문

이사, 이상도 부산해사고등학교 교사 등 3명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연맹 신축회관 준공식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이정화, SK해운 대표)은 3월10일 연맹신축회관에서 연맹임원과 장두찬 한국선주협회장, 박현규 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거행했다. 또한 정기총회도 이날 함께 개최했다.

이정화 총재는 "해양소년단연맹 회관 신축은 1987년 윤석순 전총재와 김현리 고문의 노력으로 현터전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해양수산부의 국고 5억원, 한국선주협회 회장단사의 3억원, 그리고 해양대학교 동창회 1억원의 지원으로 신축되었다"며, 신축에 도움을 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한국선주협회 등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재건축된 연맹신축회관은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87-2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395평의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건축되었다.

해양소년단연맹은 현재 6층과 7층은 연맹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임대사무실인 1층~5층은 향후 해양환경전시실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편, 정기총회에서는 2004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과 2005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신임 부총재에 한진해운 박정원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위촉패를 전달했다. 또한 신임이사들에게도 위촉패를 전달했으며 지난 한해 지방연맹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선정한 우수연맹(최우수: 서울, 우수: 조직부문 진주, 활동부문 강원, 행정부문 통영, 재정부문 대구)에게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국해운중개업협회 2005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해운중개업협회는 2월28일 프레지덴트호텔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조경훈 테크마린 사장을 선임했다. 또 부회장은 유황구 영해해운 사장과 정순영 대한선무 사장이 유임되었고, 염정호 일도해운 사장이 추가 선임됐다. 조경훈 신임회장은 회장수락 인사를 통해 △회사원사와 비회원사를 차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협회가 공동 구매사업과 공제사업 등을 펼쳐 나가는 한편, △회원사의 필요에 부응하는 협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 회장은 또 총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도가 3월부터 해운의 선물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해운거래소 설립이 절실하며 그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운중개업체는 400여 개사에 이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해운중개업 협회의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회사는 59개사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회원사 수의 증가가 절실한 실정이다.

